

또 럼 당서기장 방한 계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열려

- 또 럼 당서기장 방한 계기 비즈니스 포럼 개최, 정부·기관·기업 총 500여 명 참석
- 산업협력, 에너지, 식품·관광 등 분야에서 총 52건의 양해각서 체결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12일(화) 오전,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또 럼(To Lam) 베트남 당 서기장 국민 방한을 계기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와 베트남 재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 베트남대사관이 공동 주관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양국 간 우호적 관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민 방한을 맞아 마련된 경제행사로 주최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제2차관과 응우옌 반 탕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참석하였으며, 양국 정부·기관·기업인 총 500여 명이 함께하였다. 한국과 베트남의 6개 기업이 ① 디지털, ② 첨단산업·공급망, ③ 에너지 등 비즈니스 포럼 세부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기업 발표 세션도 함께 진행되었다.
- 한편, 동 포럼에서는 또 럼 당서기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임석 하에 산업협력, 에너지, 식품·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민간기업, 기관 간 총 5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새로운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 먼저, 산업협력 분야에서는 조선, 항공, AI, 금융, 항만 물류 등 전통 제조업에서 미래 산업에 이르기까지 총 28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투자 협력, 인력양성, 산학협력 등 다양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산업 협력을 더욱 다층적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선) 조선 분야 투자 협력, 기술 이전 및 인력양성 등 추진, ▲(항공) 정비(MRO) 및 화물 서비스 협력, ▲(AI) AI,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개발 협력, AI 전환(AX) 등

○ 에너지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전력망 안정화 등 총 11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과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청정에너지) 태양광, 친환경 연료, 그린 수소, ▲(전력망) 베트남 내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협력 등

○ 이외에도 고속철도 관련 협력*을 위해 3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우리 기업의 베트남 교통·건설 국책 프로젝트 참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식품, 관광 등 기타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총 10건 체결되면서 양국 문화 협력 또한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 (고속철도) 철도 프로젝트 연구개발, 신호 시스템 분야 인력양성 등

□ 정부는 민간기업 간 협력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등 경제협력 플랫폼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며 면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산업통상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은경 (044-200-2211)
		담당자	사무관 권회근 (044-200-2212)
		담당자	사무관 이정우 (044-200-2227)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민문기 (044-203-5710)
		담당자	사무관 강홍구 (044-203-5712)

참고 1

2025년 한-베 비즈니스 포럼 개요

○ 일시 : '25.8.12.(화) 11:00~12:30 (90분)

○ 장소 :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2층)

○ 의의 : 양국 투자 협력관계 증진과 시장진출 기회 모색

※ 슬로건 : Together we grow, together we advance

세부 주제 : 디지털, 첨단산업·공급망, 에너지

○ 주최 : (한) 산업통상자원부 (베) 재무부

○ 주관 : (한) 대한상공회의소 (베) 주한베트남대사관

○ 참석 규모 : 500명

- (한) **총리**, 산업부 2차관, 대한상의 회장, 공공기관, 기업인 등 300명

- (베) **당서기장**, 부총리, 경제부처 장관, 당 임원, 공기업, 기업인 등 200명

○ 프로그램(안)

※ 사회: 이새라 아나운서, 한-베 동시통역 제공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1:00-11:38 (38')	■ 개회식	
	① 개회사 ('5)	대한상의 회장
	② 축사 ('5)	베 재무부 장관
	③ 국무총리 기조연설 ('10)	
	④ 베트남 당서기장 기조연설 ('10)	
	⑤ 영상 상영 (당서기장 메시지 포함) ('8)	베트남 투자환경 소개
11:38-12:13 (35')	■ 발표 세션 (디지털, 첨단산업, 청정에너지)	한국·베트남 6개사 발표
12:13-12:15 (2')	■ 감사 인사	베트남 부총리겸외교부장관
12:15-12:25 (10')	■ MOU 체결식	총리, 베 당서기장 등 주요 인사 임석
12:25-12:30 (5')	■ 기념 촬영	
포럼 종료		
12:30~	■ 비즈니스 매칭	

신 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또 럽 당서기장님,
베트남 정부 관계자 그리고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글로벌 제조 산업의 허브이자 공급망 중심지로 떠오르는
베트남을 이끄시는 당서기장님을 비롯한
대표단 여러분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방한은 지난 6월 4일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국민 방한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오랜 시간 우호와 신뢰를 쌓아온 친숙한 나라입니다.

800여 년 전에, 베트남 리 왕조의 왕자가
고려에 정착해서 화산이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일화는
양국 간 교류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한국과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고,
양국 간의 인적·문화적 교류는 어느 때보다도 활발합니다.

베트남은 세계 최초로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채택해주셨고,
음악, 드라마, 음식, 영화 등 한국 문화의 열풍은
베트남 전역에서 여전히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중에서 베트남인이 두 번째입니다.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네 명 중에 한 사람이 한국인일 정도로
양국은 긴밀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내일 8월 13일에 駐부산 총영사관이 개소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과 베트남은 비즈니스 협력
에서 이룬 성과입니다.

1992년 수교 이후 30여 년 만에
양국은 서로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은 현지에 약 10,000개에 이르는 기업이 진출한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섬유·전자·화학·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으로 불가분의 경제협력 파트너로 발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기후 위기, 지정학적 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최근의 국제이슈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 주석께서는
‘폭풍우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보여줄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베트남이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동안의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의 파도를 기회의 순풍으로
삼아서 경제협력을 한 차원 더 도약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또 럽 당서기장님 그리고 양국 기업인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베트남 경제협력의 미래를 위한
세 가지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1) 첫째, 그동안 전통산업 위주의 수직적 협력관계에서
이제는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층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그간의 성과를 통해서
양국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야 합니다. 첨단산업, 문화,
서비스, 디지털 전환 등 신성장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다층적 협력의 산업 생태계를 함께 조성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2) 둘째로, 제조업뿐 아니라 에너지, 희소자원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신성장 산업으로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망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아시다시피 LNG, 재생에너지, 원전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베트남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믹스 달성을 위해서 언제든지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재생에너지 협력 MOU」와 「원전 인력양성 협력 MOU」를 통해서 양국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3) 셋째, 이제 한국과 베트남은 이제 양자협력 관계를 넘어서 아세안과 글로벌 사우스를 향한 핵심 파트너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베트남은 젊고 유능한 인재, 매력적인 투자환경, 다층적인 통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베트남은 글로벌 사우스를 선도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2045년 고소득국 진입이라는 국가 비전을 반드시 달성하리라 확신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베트남과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양국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속에서도 협력해서 글로벌 무대에서의 핵심 파트너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서기장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양국 기업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과 베트남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가 활발한 만큼
교역·투자 애로도 다수 존재합니다.

산업·FTA 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의체를 적극 가동해서
교역·투자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기를 바라며,

또 럽 당서기장님의 리더십 아래서
한국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한-베트남 FTA 10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FTA 활용 및 이행 성과도 함께 점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베트남 속담에
'친구 간의 우정은 바다도 메운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가깝고 특별합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경험을 바탕으로,
막역한 우방인 베트남의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갈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서도 한-베트남 경제협력의 주역으로서,
오늘 새로운 투자 협력의 결실을 맺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신 감 언(감사합니다). 끝.